

- 사생결단 기도회 첫째 날 -

인생의 최대의 ()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13-16

- 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14 ()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 이제도 너희가 ()을 하니 그러한 자량은 다 악한 것이라

인생의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측되지 않는 앞날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입니다.

어떠한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내일에도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을까?
2. 오늘 계획하는 일이 내일부터 실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3. 완벽하게 계획한다 하였지만, 과연 계획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
4.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까?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인색할 정도로 검소하고 아끼고 인내한다 해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를, 명예를, 권력을 정직하게 누리고 거느린다 해도, 인생이 당하는
()로 인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라는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변수를 어떻게든 잘 막고, 처리하고 이겨보기 위해, 물질들 ()
벌어두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 가져두면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이 “조금만 더 안정적인 궤도”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죠. 단지 “조금만 더” 있으면 무엇일지 모르나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변수를 극복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결국, 내일의 변수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닌 내일의 변수를 위해 “()” 얻고자 하는 일을 위해
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최대의 변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死

죽을 사자의 의미

날 일자, 밤 야자, 칼 도자
야밤에 칼 한 자루가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

“조금 더” 있는 물질로 경제적 변수는 “조금 더” 이겨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 여유있는 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을 끌어보고
노력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체나 직장상황이 해결점을 찾기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변수를 막거나, 시간을 벌거나 주거나, 이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변수를 제쳐두고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도, 아무리 많은 시간도,

1. 모든 인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2. 한번은 반드시 당하고 마는
3.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어느 학자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찾기 위해 성경을 철저히 살펴보았다. 그는 가장 슬픈 단어, 가장 행복한 단어, 가장 감동적인 단어 등을 알아내고 싶었다.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를 찾던 중, 그는 ‘()’이라는 말에 주목했다. 이 단어야말로 꿈과 가장 큰 성취를 앗아가는 가는 도둑이 아닌가! 이 학자의 말마따나 이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펔전도 같은 생각이었다. ‘내일, 내일, 내일! 아아,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보들의 달력에만 있는 것이다.’
-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당신의 삶에서 거인들을 제거하라” -

마태복음 6:25-34

-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